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다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026년 2월 1일 (641호)

2. 아침묵상

디모데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정각에 공개됩니다.

3. 축돌

최 빅토리아 권사님 가정의 딸 에스더의 아들 에이든이 첫돌을 맞이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비례판정 1:6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TOGETHER COMMUNITY CHURCH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지난 주 (1/25) 현금 통계

선교구제 현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현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90.00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최빅토리아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누가복음 22:31-62

다함께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나를 모른다고 할꺼야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2월 8일

2월 15일

유영환

강민선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목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책이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성경은 66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으로 적혀 있지만 사실상 한권의 책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시면서 이 빵과 잔을 먹고 마실때만 나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바로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 어의 기적과 지금 십자가 고난 바로 직전에 마주하고 있는 성만찬의 의미가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양식,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인간들은 그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거예요? 오늘 본문을 들여다 보세요 기적을 볼때는 열광을 하고 난리 버거지를 치다가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는데 거기서 누가 크나라고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걸 소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소화를 못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턱 걸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뱉어 버리는 거죠. 그 말씀을 대하는 내가 시퍼렇게 살아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내가 죽으면 말씀이 쉽습니다.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살아집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연대기순으로 쓰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이런 문제로 서로 다투었을때가 누가복음 9장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들이 제자가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초신자라고 칩니다. 충분히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 다닌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이에요.

앉아 먹는 자는 그니까 서빙(serving)을 받는 자죠? 서서 시중드는 자는? 서서 섬기는시중드는 자는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이예요. 종 이예요. 세상 속에서는. 이 세상 나라는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왜? serving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서서 섬기고, 먹이는 자로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을 먹여서, 영생으로 살려 내시는, 죄인들을 섬긴 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가능성성이 없는 존재들인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주님 예수님 떠들면서 온갖 자신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존재라고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서 함께 겸손해지고 낮아지기를 원해요. 그 생명의 빵을 먹은 자로서 예수님의 살아내신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로 우리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다 이 땅에서 조용히 사라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